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필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A Study of Fillers in the Korean Subtitles of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이윤옥 (Yoonok Lee)*

ABSTRACT: This paper is the continuation of research by Lee (2020), and is a Korean-Japanese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focusing on the disappearance of fillers in subtitle translations. The element lost in the translation subtitles is information that cannot be conveyed when studying foreign language through the use of subtitles, or simply when just enjoying a cinematic production. This paper uses as its materials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fillers that appear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Korean subtitles that correspond to them. Firstly, it surveys the role of fillers in language that was previously revealed in earlier research. Then, it quotes all of the instances of fillers in the Japanese dialogue of the film, and presents the dictionary definition and the frequency of their occurrence. It finds as a result that roughly 55% of the fillers that are used in Japanese lines are lost in the Korean subtitles. In the analysis, the role and the meaning of fillers used in Japanese lines are shown. On the basis of that survey, it analyses the instances of subtitles in which the fillers are lost and puts them in contrast with instances where they are retained in the Korean tex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finds that the Japanese language, as opposed to Korean, is one that uses fillers with high frequency, and also that variety of such fillers is considerable.

KEYWORDS: fillers, subtitle translation, Japanese lines, Korean subtitle, lost elements

1. 들어가기

영상 번역은 번역실무와 번역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IT 와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비중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막 번역은 영상 번역의 한 장르로 텍스트 번역에 비해 기술적・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동시에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글자수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대사의 약 43%가

* Professor of Cognitive Linguistics,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leigh@intl.kindai.ac.jp

Lee, Y. (2021). A Study of Fillers in the Korean Subtitles of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6, 35-57.
©2021 Yoonok Lee

손실된다[1]. 이러한 기술적・물리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외에도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언어・문화적 요소 또한 적지 않다. 이들 요소는 자막을 이용한 자율적 외국어 학습이나 영상 작품을 즐길 때는 전달되지 못하는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화의 한국어 자막에서 많이 소실되는 요소 중의 하나인 필러(fillers)에 주목하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러가 출현하는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비교・대조하면서 일본어 대사에 사용된 필러의 역할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막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도 조사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일본어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가 되고 '한일 영상 번역 기술'의 향상에 일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8 년 제 41 회 아카데미상(신인배우상, 화제상(작품부문))을 수상한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번역 자막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일본어 대사의 필러를 분석할 것이며, 이윤옥(2020)의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이문화 요소」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또한 이 작품은 필자의 '한일영상번역' 과목의 수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강생들로부터 이(異)언어・문화의 학습 자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필러의 제양상

3.1. 연구 대상으로서의 필러

사다노부(定延)(2010)는 '전통적으로 필러는 가치 없는 잡음으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 성과가 가장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듯이 필러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필러가 구어체 연구에서 높이 평가받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 (1)과 같이 언급하였다.

(1) 「フィラーの観察が人間心内の認知行動の解明に役立つ」という認知科学的な考えの広まりである。
(필러의 관찰이 인간의 심적인 인지행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지과학적인 생각의 확산이다.)

[1] 이윤옥 (2020) 참조.

— 사다노부(定延)(2010:28)(필자 옮김)

필러의 사용을 관찰하면 필러 사용자의 인지 프로세스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필러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2. 필러의 명칭과 품사

필러라는 음성 현상은 구어체 연구에서 지금까지 통일된 명칭 없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2)로 확인할 수 있다.

(2) 伝統的な国語学では、「感動副詞」(山田 1936)、「感動詞」(佐久間 1943、橋本 1948)、間投詞 (佐久間 1943) 等と呼ばれ、品詞の一つに位置付けられている。その後、話しことばを対象とする一連の研究の中では、「遊び言葉」(伊佐早 1953)、「場つなぎ言葉」(遠藤 1953)、「言いよどみ」(小出 1983)、「フィラー」(定延 1993、野村 1996、山根 1997b、2002)などの名称がつけられている。
(전통적인 국어학에서는 '감동부사' (야마다:1936), '감동사' (사쿠마:1943, 하시모토:1948), '간투사' (사쿠마:1943) 등으로 불리며, 품사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 후 구어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말' (이사하야:1953), '화제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 말' (엔도:1953), '머뭇거리는말' (코이데:1983), '필러' (사다노부:1993, 노무라:1996, 야마네:1997b, 2002) 등의 명칭이 쓰여지고 있다.

— 趙宏杰(2014:28)(필자 옮김)

본고에서는 사다노부(定延)(1993), 노무라(野村)(1996), 야마네(山根)(2002)에 따라 필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필러의 명칭과 관련해 품사로서의 위치에 대해 야마네(山根)(2002)는 다음 (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学校文法として定着している橋本進吉の品詞分類では、単独で文節を作り、活用がなく、主語にならず、修飾接続をしない感動の情や応答を表す語を「感動詞」と呼んでいる。古くは鈴木朖の「心の声」、感動詞という品詞を立てず、副詞の一部とみなした山田孝雄の「感応副詞」「感動副詞」、その他「嘆詞」「感嘆詞」「間投詞」「終止詞」「喚感動動詞」のような名称もあったようであるが、現在では感動詞という名称が広く用いられている。この感動詞には、「あら」「まあ」のようないわゆる驚きや感動を表す語、「うん」「はい」のような応答詞、「おい」のような呼びかけ語、「あのう」「えー」のような語が含まれるが、

実はどの語を感動詞として認めるかには揺れがあり、特に数々の文法論の中で、「あのう」「えー」のような語に触れているものは少ない。
(학교 문법으로 정착하고 있는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의 품사 분류에서는 단독으로 문장의 절을 만들거나 활용이 없고, 주어가 될 수 없으며, 수식 접속을 하지 않는 감동의 정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말을 '감동사'라 부르고 있다. 스즈키 아키라(鈴木朖)는 '마음의 소리'라 불렀고,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는 감동사라는 품사를 세우지 않고 부사의 일부로 보아 '감응부사' '감동부사'라 불렀다. 그 밖에 '탄사' '감탄사' '간투사' '종지사' '환감동동사'와 같은 명칭도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는 감동사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감동사에는 'あら(≒어머(나), 어머머, 저런)' 'まあ(≒어머, 어머나)'와 같은 소위 놀라움이나 감동을 나타내는 말, 'うん(≒응, 음)' 'はい(≒예)'와 같은 반응사, 'おい(≒어이, 이봐)'와 같은 부름말, 'あのう(≒저, 저어)' 'えー(≒예, 네, 뭐)'와 같은 말이 포함되지만, 사실 어떤 말을 감동사로 인정하는냐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특히 많은 문법론 가운데 'あのう(≒저, 저어)' 'えー(≒예, 네, 뭐)'와 같은 말을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야마네(山根)(2002:28-29)(필자 옮김)

즉, 필러가 일본어에서는 '감동사'나 '부사'로 분류되는 등 문법상으로서의 정립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감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필러의 품사 분류에 대해 이익섭(李翊燮)・임홍빈(任洪彬)(1998)은 다음 (4)와 같이 설명한다.

(4) '얘, 응, 자, 아차, 어머나' 등은 感嘆詞라 하여 독립된 品詞로 分立시키는데, 이들은 語尾나 助詞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冠形詞나 副詞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문장의 어느 한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과 구분된다. '얘, 너 이리 좀 오너라.' 에서 '얘' 는 後続되는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는다면 맺고 있고 그 어느 한 단어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응, 나도 가겠어.' 나 '아차, 내 정신 좀 봐.' 에서의 '응' 이나 '아차' 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感嘆詞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어떤 다른 品詞보다도 疎遠하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感嘆詞로 하여금 독립된 한 品詞가 되게 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이익섭(李翊燮)・임홍빈(任洪彬)(1998:128)

(4)로 보아 한국어에서도 감탄사, 즉 감동사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장에서 독립적이라는 점이 관형사나 부사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낱말 하나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필러란 무엇인가? 필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5)와 같다.

(5) 間投詞かんとうし interjection

感嘆詞、感動詞とも呼ばれる。話し手が、驚き、喜び、悲しみなどの感情を、直接表現するときに用いる単語。日本語の「あっ」「やれやれ」などがそれにあたる。自然に口をついて出る言語音という性格を持つものが多いので、品詞としては周縁的位置を占めるが、各言語には、かなり固定して頻繁に用いられる間投詞が存在する。特に、掛け声や呼びかけ、挨拶語（これらも間投詞に含めることがある）になるとそうである。文法的な性質としては、孤立的で他の文構成要素と結合されず、他の語を修飾したり他の語から修飾されたりしな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

(감탄사, 감동사라고도 불린다. 화자가 놀라움,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다. 일본어의 'あっ(≒앗, 아, 이크)'이나 'やれやれ(≒아이구, 맙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연스럽게 입을 뚫고 나오는 언어음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품사로서는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각 언어에는 상당히 고정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간투사가 존재한다. 특히 구호나 부름말, 인사말(이들도 간투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이 되면 그렇다. 문법적인 성질로서는 고립적이고 다른 문장의 구성 요소와 결합되지 않으며, 다른 단어를 수식하거나 수식되는 일도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小項目版 2016』(필자 옮김)

(5)로 알 수 있듯이, 필러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 존재하며 구호나 부름말 뿐만 아니라 인사말까지 포함되는 등 범주가 넓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필러는 명칭과 품사 분류에 있어 연구자 사이에 견해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막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러의 명칭과 품사 분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대략적인 정리로 그치겠다.

3.3. 필러의 발생 요인

필러가 구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이유에 대해

코이데(小出)(1983)는 다음 (6)과 같이 밝히고 있다.

(6) 大きく、二つの要因を挙げたい。一つは、内容を明確に伝えるということ、もう一つは、場への適切さを保つ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らは、会話一般に通ずる原則であるが、言いよどみは、この二つの原則を満たそうとするための努力ゆえに生ずると言えるであろう。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싶다. 하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맞는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 회화에도 통하는 원칙이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

— 小出(코이데) (1983:85) (필자 옮김)

즉, 대화 내용을 정확히 전하고, 대화의 흐름을 적절히 유지시키기 위해 필러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야마네(山根)(2002)는 필러의 존재의미에 대해 다음 (7)과 같이 밝히고 있다.

(7) フィラーは、種類それぞれの役割を認識し、その大部分が発話の意味理解を助け、話し手のポジティブな心情、ネガティブな心情のどちらも聞き手に伝える信号となっている。また、話し手が自分の発話をモニターし、はつわを軌道に乗せたり修正したりするのに役立ている。つまり話し手にとっても聞き手にとっても一種の親切信号となっているのが、フィラーの存在意義だと言える。
(필러는 각 종류별 역할을 인식하고 대부분이 발화의 의미이해를 도와주며, 화자의 긍정적인 심정과 부정적인 심정을 모두 청자에게 전달하는 신호이다. 또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모니터함으로써 발화를 궤도에 올리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화자나 청자에게 일종의 친절신호가 되는 것이 필러의 존재의미라 할 수 있다.)

— 야마네(山根)(2002:237)(필자 옮김)

즉, 담화에서 필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화의 의미이해를 도와주고, 화자의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발화를 궤도에 올리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3.4. 필러의 역할

코이데(小出)(1983)는 필러가 지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화자의 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 다음 (8)과 같이 밝히고 있다.

(8) まず、話の速度を下げ、全体として、話の丁寧度を増加させるということである。次に、話を始める時、言いよどみが、やりとりを和らげる働きを持つことがある。(먼저 말의 속도를 낮춰 전체적으로 말의 정중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시작할 때, 주고받는 것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 小出(코이데)(1983:87)(필자 옮김)

(8)에서 밝히고 있는 2 가지 역할은 말의 공손도를 높이고 대화를 시작할 때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야마네(山根)(2002)는 필러의 역할을 다음 (9)와 같이 밝히고 있다

(9) 話し手と聞き手のやりとりによって生じるフィラーの役割は、大きく 5 点にまとめられる。まず、発話権保持のためのフィラーがある。(中略) 次に、新しい情報を切り出す際の注意喚起の役割を担うフィラーがある。(中略) 第 3 に、適切な応答を考えつくまでの時間稼ぎの役割を担っているフィラーがある。(中略) 第 4 に、結果的に発話権譲渡の手助けをしてしまうフィラーがある。(中略) 第 5 に、話し手の心的態度を表明するためのフィラーがある。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필러의 역할은 크게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발화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러가 있다. (중략) 둘째, 새로운 정보를 꺼낼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필러가 있다. (중략) 셋째, 적절한 응답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역할의 필러가 있다. (중략) 넷째, 결과적으로 발화권을 양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러가 있다. (중략) 다섯째,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명하는 필러가 있다.)

— 山根(야마네)(2002:141-143)(필자 옮김)

(9)에서 말하는 필러의 5 가지 역할은 발화권 유지・주의 환기・시간 벌기・발화권 양도・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필러는 발화에 있어서 명제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발화의 일부분을 채우는 낱말이다. 동시에, 지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발화자가 어떤 심적 조작을 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임시변통적인 언어 표현으로써 의사 소통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필러의 역할을 다음 <표 1>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필러의 역할

(1) 말의 속도를 낮춰 말의 공손도를 높인다.
(2) 말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완화시킨다.
(3) 발화권을 유지한다.
(4) 새로운 정보를 꺼낼 때 주의를 환기시킨다.
(5) 적절한 응답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번다.
(6) 발화권 양도에 도움을 준다.
(7)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명한다.

본고의 분석 자료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출현한 필러의 종류와 출현 횟수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다음 <표 2>로 도표화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필러의 나열은 일본어의 기본 음절인 오십음 순이다. 그리고 필러의 사전적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あ’라 하더라도 ‘무엇에 감동하여 내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누군가를 부를 때 내는 소리’ 또는 ‘응답하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표 2> 필러의 사전적 의미와 출현 횟수

필러	일본어 출현 횟수	한국어 출현 횟수	사전적 의미[2]
あ ああ あっ	15 5 1	3 1	① 무엇에 감동하여 내는 소리 ② 말을 걸거나 부를 때 내는 소리 ③ 응답하는 소리
あの	3	3	구어에서 술술 말할 수 없을 때 끼우는 이음말
あのさ	3	2	① 친한 상대에게 말을 걸 때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말의 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 ② 친밀감을 가지고 말의 처음이나 중간에 끼워 말을 연결하는 말
あれ？ あれ	2 2	1 1	놀랐을 때나 미심쩍을 때 내는 소리

[2] 사전적 의미는 주로 코지엔『広辞苑』을 이용하였다.

うわ	2		의외의 일로 놀라거나 남을 놀라게 할 때 내는 소리
うん うん？ う～ん	13 1 1	5 1	① 승낙이나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때 내는 소리 ③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나서 내는 소리
え え～ え! え？ ええ？ えっ？ え～と	3 2 1 14 1 2 1	1 8 1 1	① 감동을 나타내는 소리 ② 수락 또는 응답하는 소리 ③ 놀라움을 담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 ④ 상대의 주의를 재촉할 때 내는 소리
いや	11	8	① 놀랐을 때나 감탄했을 때 내는 소리 ② 말을 걸거나 말을 시작할 때 내는 소리 ③ 장단을 맞출 때 내는 소리
いやいや	1	1	싫어라는 말을 거듭하여 부정의 기분을 강조하는 말
こらこら	1		비난하는 마음을 담아 남에게 호소하고 주의를 재촉하는 말
さあ? さぁ	1 1	1	① 사람을 꾀거나 남을 재촉할 때 내는 소리 ② 놀라거나, 기쁘거나, 당혹스러울 때 내는 소리 ③ 분발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는 소리
それ	2		① 격식차린 마음으로 글을 쓰거나 사물을 늘어놓는 데 쓰이는 말 ② 격려하거나 주의를 돌리게 하거나 상대를 부를 때 쓰는 말
ちょっと	2	2	상대를 부르는 말
な?	1	1	감탄하거나 부를 때, 또는 다짐할 때 쓰는 말
なに	2	2	다짐할 때 되묻거나 상대의 말을 지울 때 쓰는 말
ね ね? ねえ	4 2 10	1 1 2	① 친근하게 부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② 가벼운 감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 ③ 상대를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 쓰는 말

は は？ はい はい？	2 3 5 4	1 2 3 3	① 정색을 하고 승낙의 뜻을 표하여 응답하는 말 ② 주의를 촉구하는 말 ③ 다소 정색을 하고 대답하거나 되물을 때 쓰는 말 ④ 수상쩍어 할 때 내는 소리
ふぅ～ん	1		감탄하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을 나타낼 때의 콧소리
へ？ へぇ	1 1	1 1	① 응답의 소리 ② 업신여길 때 내는 소리
ほお	1		의외의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ほら ほらほら	3 1	1	갑자기 주의를 재촉할 때 하는 말
ほれほれ	1	1	주의를 재촉하거나 기합을 줄 때 하는 말
まあ	2		① (여성이) 놀라거나 감탄할 때 내는 소리 ② 충분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정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③ 자기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가볍게 억누를 때 쓰는 말
よう	3	3	① 감동을 나타낼 때의 소리 ②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부를 때 내는 소리
よし	4	1	① 결의를 나타내는 말 ② 동의나 승낙을 나타내는 말 ③ 위로의 말 ④ 명령을 강하게 하는 말
합계	142	64	

<표 2>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어 대사에 44 종류의 필러가 142 회 출현한 것에 비해 한국어 자막에는 64 회의 적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일본어 필러의 약 55%가 한국어 자막에서 소실된 것이다. 자막에 적용된 45%도 순전한 한국어 필러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접속 부사를 사용하거나 의역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필러 가운데 'あ'가 15 회로 가장 많이 출현했으며, 그 뒤를 이어 'え？'가 14 회, 'うん'이 13 회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현한 것은 'いや'가 11 회, 'ねえ'가 10 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 자막에 많이 적용된 것은 'え？'(8 회), 'いや'(8 회), 'うん'(5 회) 순이었다. 적용된 사례를 보면, 일본어 대사에 15 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 필러 'あ'가 한국어 자막에서는 3 회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것도 필러가 아닌 형용사의 활용형인 '그러게'(2 회)와 '그랬나'(1 회)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현한 필러 'え？'는 한국어 자막에 8 회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뭐?'(7 회)와 '응?'(1 회)'으로 자막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막번역의 기술적・물리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막에서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살아있는 구어체의 올바른 학습과 이해를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4. 분석 결과

위의 <표 1>과 <표 2>를 기준으로 일본어 대사의 발화 첫머리에 출현하는 필러의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후, 그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서 완전히 소실된 대화문과 살아있는 대화문을 장면별로 발췌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러가 적용된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자막 처리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물론 본고의 분석 자료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출현한 필러가 <표 2>의 사전적 의미를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면별로 발췌한 대화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필러가 완전히 소실된 대화문[3]의 분석

본절에서는 일본어 대사의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서 완전히 소실된 대화문을 발췌하여 검토하고 그 필러의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제시한다.

[3] 발화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 하루키와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다. 하루키: 시가 하루키이며 남자 주인공으로 현재는 국어 선생님이다. 사쿠라: 야마우치 사쿠라이며 여자 주인공이다. 쿄코 : 사쿠라의 절친이다. 미야타는 사쿠라와 같은 반 남학생 친구이다.

【분석 자료 1】<두 선생님의 대화>

선생님 : ⓐ **え**、長らくの間検討してまいりましたわが校の図書館ですが…
志賀先生、ちょっといいですか？
ⓐ'**φ** 학교 도서관에 대해 오랬동안 검토했는데 …
시가 선생님! 잠시만요.
하루키 : ⓑ **ああ**、はい。
ⓑ'**φ** 네.
선생님 : 図書館の蔵書の整理、先生にご担当をお願いしたいんです。
先生は司書資格もお持ちですし、
ここの在校生だった時図書委員やってましたよね？
覚えてますよ。あの膨大な本のラベル整理したの先生だって。
도서관 장서 정리를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은데요.
사서 자격증도 있고, 학생 때 도서위원이었잖아요.
그 엄청난 책 목록을 다 정리하신 거 아니다.
하루키 : ⓒ **いや**、12年も前のことですし。
ⓒ'**φ** 12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분석 결과 1】
ⓐ의 역할은 <표 1>-(2)의 '분위기 완화'이며, 의미는 '상대의 주의를 재촉할 때 내는 소리'이다. ⓑ의 역할은 <표 1>-(5)의 '시간 벌기'이고, 의미는 '응답하는 소리'이다.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놀랐을 때 내는 소리'가 된다.

【분석 자료 2】[4]<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1>

사쿠라 : ⓐ**ねえ、**ここすごいね！
ⓐ'**φ** 여기 엄청나다!
하루키 : ⓑ**ちょっと、**ここは図書委員以外入室禁止！
ⓑ'**φ** 여긴 도서위원 이외엔 출입금지야!
사쿠라 : けーち。そんなに私迷惑？
쩨쩨하긴, 내가 그렇게 귀찮아?

[4] 분석 자료에서 굵은 글씨는 필러를 나타내고 φ는 필러가 소실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2】

ⓐ와 ⓑ의 역할은 <표 1>-(4)의 '주의 환기'가 되며, 의미는 각각 '상대를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 쓰는 말'과 '상대를 부르는 말'이 된다.

【분석 자료 3】<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2>

사쿠라 : どうしてここにいるの？ 왜 여기 있어?
하루키 : 盲腸で手術したから。맹장 수술 했거든.
사쿠라 : ⓐ **ほお**。ここんとこ休んでたもんね。
ⓐ'**φ** 요새 학교 안 나오더니.
하루키 : 気づいてたんだ。알고 있었어?
사쿠라 : ⓑ **うん、** 当たり前でしょ。
ⓑ'**φ** 당연하지.

【분석 결과 3】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의외의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이다. ⓑ의 역할은 <표 1>-(3)의 '발화권 유지'로 볼 수 있으며, 의미는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때 내는 소리'가 된다.

【분석 자료 4】<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3>

사쿠라 : ⓐ **ほら、**最近この辺りで通り魔事件もあるし。
ⓐ'**φ** 요즘 '묻지마 폭행'도 많고 말야.
……
君に私の残り少ない人生の手助けをさせてあげます。
남겨진 짧은 시간 동안 네가 날 돕는 걸 원해.
하루키 : ⓑ **はい？**
ⓑ'**φ**

【분석 결과 4】

ⓐ의 역할은 <표 1>-(4)의 '주의 환기'이며, 의미는 '갑자기 주의를 재촉할 때 하는 말'이다.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고, 의미는 '다소 정색을 하고 되물을 때 쓰는 말'이 된다.

【분석 자료 5】<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4>

하루키 : ⓐ**それ**、秘密を知った僕への嫌がらせ？これからどうするの？
ⓐ'**φ** 비밀을 알아버렸다고 날 괴롭히는 거야? 앞으로 어쩔 건데?
사쿠라 : ⓑ **あ**、未来って意味？
ⓑ'**φ** 미래를 말하는 거야?

【분석 결과 5】
ⓐ의 역할은 <표 1>-(2)의 '분위기 완화'이며, 의미는 '주의를 돌리게 할 때 쓰는 말'이다. ⓑ의 역할은 <표 1>-(5)의 '시간 벌기'로 볼 수 있으며, 의미는 '응답하는 소리'가 된다.

【분석 자료 6】<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5>

하루키 : 僕はただ向き合おうとしてないだけだよ。
나는 그냥 의식하려 하지 않을 뿐이야.
사쿠라 : ⓐ**こらこら**！そんな難しい顔するんじゃない。
ⓐ'**φ** 그런 심각한 표정 짓지 마.

【분석 결과 6】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비난하는 마음을 담아 남에게 호소하고 주의를 재촉하는 말'이다.

【분석 자료 7】<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6>

사쿠라 : 今更そんなお願い事しないよ。이제 와서 그런 소원 안 빌어.
하루키 : じゃあ、何。그럼 뭐?
사쿠라 : 皆の末永い健康を祈っておきました。다들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빌었어.
ⓐ**よし**、おみくじ引こう！
ⓐ'**φ** 길흉 제비뽑기하러 가자!
하루키 : おみくじは勝ち負けじゃないから。이기고 지고가 어딨냐?
사쿠라 : ⓑ**うわ**、大吉！
ⓑ'**φ** '매우 길함'이야!

【분석 결과 7】

ⓐ와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각각 '결의를 나타내는 말'과 '의외의 일로 놀랄 때 내는 소리'이다.

【분석 자료 8】<하루키와 쿄코의 대화 >

하루키 : こんな遅くなってごめん。
너무 많이 늦어져서 미안해.
ⓐ **あの、**僕と友達になってもらいませんか。
ⓐ' **φ** 나와 친구가 되어 주겠니.
쿄코 : はい。좋아.

【분석 결과 8】

ⓐ의 역할은 <표 1>-(2)의 '분위기 완화'이며, 의미는 '구어에서 술술 말할 수 없을 때 끼우는 이음말'이다.

【분석 자료 9】<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7>

사쿠라 : ふっかふか～！一緒のベッドで寝れるなんてドキドキするね。
푹신푹신! 한 침대에서 자려니까 두근거린다 그지?
하루키 : 馬鹿じゃないの！僕はこっち。
너 바보냐? 난 소파에서 자.
사쿠라 : ⓐ **え～**、せっかくいい部屋だからちゃんとベッドまで味わっとこうよ。
ⓐ'**φ** 좋은 방 얻었는데 침대도 제대로 맛봐야지.
하루키 : じゃあ、後で一度寝転んでみるよ。
φ 나중에 한번 뒹굴어 볼게.
사쿠라 : ねえ、女の子と一緒に寝れるってうれしくないの？
φ 여자애랑 자는 건데 기쁘지 않아?
하루키 : そういうのは恋人とやってよ。
그런 건 연인하고 해라.
사쿠라 : ⓑ**ふぅ～ん**。じゃあ私、お風呂はいろ～と。
ⓑ' **φ** 그럼 난 목욕할래.

【분석 결과 9】

ⓐ와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각각 '놀라움을 담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와 '의심스러운 마음을 나타낼 때의 콧소리'가 된다.

【분석 자료 10】<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8>

하루키 : 手貸すから早くたって。손잡아 줄테니 빨리 일어나.

사쿠라 : 言ったでしょ。運んでって。못 들었어? '옮기기'라니까.

ⓐ **ほらほら、**おんぶがいいかなぁ。それともお姫様…

ⓐ'**ɸ** 업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공주처럼….

ありがとう、お姫様抱っこ。 공주처럼 안아 줘서 고마워.

【분석 결과 10】

ⓐ의 역할은 <표 1>-(4)의 '주의 환기'이며, 의미는 '갑자기 주의를 재촉할 하는 말'이다.

【분석 자료 11】<사쿠라와 쿄코의 대화 >

쿄코 : 桜良、今どこにいんの？私んちに泊まるって嘘ついたでしょ。

お母さんから電話あったんだからね。

ⓐ **まぁ**、話合わせといたけど。で、今どこ？誰といるの？

사쿠라,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서 잔다고 뻥쳤지?

네 엄마 전화 왔었어.

ⓐ'**ɸ** 눈치껏 둘러대긴 했어.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사쿠라 : 博多。仲良し君と。하카타. '친한 사이 소년'이랑.

【분석 결과 11】

ⓐ의 역할은 <표 1>-(5)의 '시간 벌기'로 볼 수 있으며, 의미는 '자기의 주장을 가볍게 억누를 때 쓰는 말'이다.

위의 분석 자료 11 개는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나타난 44 종류의 필러 가운데 대화문에 출현한 19 종류의 필러의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이 19 종류의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서는 모두 소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필러가 적용된 대화문의 분석

앞절에서는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서 완전히 소실된 대화문을 발췌하여 살펴보았으나, 본절에서는 그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 어떤 형태로든 적용된 대화문을 발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어 필러의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동시에 자막에 나타난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에 <표 3>으로 제시할 것이다.

【분석 자료 1】[5]<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1>

사쿠라 : 日曜 11 時に駅前集合！よろしくね。
　　일요일 11 시, 역 앞에 집합. 잘 부탁해!
하루키 : ⓐ **いや**、ちょっと待ってよ。
　　ⓐ' **야,**　잠깐만.
　　……
사쿠라 : 君以外には言わないよ。너 말고 다른 사람에겐 이런 말 안 해.
하루키 : ⓑ **えっ？**
　　ⓑ' **뭐?**

【분석 결과 1】
ⓐ와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각각 '놀랐을 때 내는 소리'와 '놀라움을 담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자막에 적용된 ⓐ'의 '야'는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고,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분석 자료 2】<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2>

사쿠라 : ⓐ **ねぇ、**仲良し君、洗顔クリーム取って！
　　ⓐ' **야,**　'친한 사이 소년'! 세안제 좀 갖다 줘.
하루키 : ⓑ **え！**
　　ⓑ' **뭐?**
사쿠라 : リュックの中にあるからさ～！내 가방 안에 있어.

[5] 일본어 굵은 글씨는 필러를, 한국어 굵은 글씨는 일본어 필러에 대한 자막 번역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2】

ⓐ의 역할은 <표 1>-(2)의 '분위기 완화'이며, 의미는 '상대를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 쓰는 말'이다. ⓐ'의 '야'는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다.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놀라움을 담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분석 자료 3】 <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3>

사쿠라 : 思ったより素敵だったから。
생각보다 멋져서 말야.
하루키 : ⓐ **あ、**素敵な子だったかもしれない。
ⓐ' **그러게.** 멋진 아이였을 지도 몰라.
사쿠라 : 違うよ。好きになった理由が。
그게 아니라, 좋아하게 된 이유 말야.
하루키 : ⓑ **は、**
ⓑ' **아…**
사쿠라 : その子に告白はしたの？
그 애한테 고백은 했어?
하루키 : まさかクラスのカッコいい男がもってっちゃったよ。
아니, 같은 반에 인기 좋던 남자애가 채어갔지.
사쿠라 : 人を見る目がないですね。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하루키 : ⓒ **え？**そっちこそどうなの？
ⓒ' **뭐?** 너는 어떤데?
사쿠라 : 彼氏ならいたよ。ついこないだまで。남친은 있었지. 아주 최근까지.
하루키 : ⓓ **ええ？**
ⓓ' **그래?**

【분석 결과 3】

ⓐ의 역할은 <표 1>-(5)의 '시간 벌기'이며, 의미는 '무엇에 감동하여 내는 소리'이다. ⓐ'의 '그러게'는 '상대방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하는 말'로 쓰인다. ⓑ, ⓒ, ⓓ의 역할은 모두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 의미는 '승낙의 뜻을 표하여 응답하는 말'이고, 자막에 적용된 ⓑ'의 '아…'는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로 쓰인다. ⓒ의 의미는 '놀라움을 담아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이며,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의 의미는 '수락 또는 응답하는 소리'이며, ⓓ'의 '그래?'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분석 자료 4】<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4>

사쿠라 : うちのクラスで誰が一番かわいいと思う？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쁜 거 같아?
하루키 : ⓐ**はい？**いきなり何を言い出すの、君は。
ⓐ'**뭐?** 무슨 질문이 그래?
사쿠라 : ⓑ**ほれほれ**～、誰なの？
ⓑ'**어서 말해**. 누구야?
하루키 : ⓒ**あの**、数学が得意な子かな。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

【분석 결과 4】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다소 정색을 하고 되물을 때 쓰는 말'이다.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의 역할은 <표 1>-(6)의 '발화권 양도'로 볼 수 있고, 의미는 '주의를 재촉할 때 하는 말'이다. ⓑ'는 상황에 맞춘 의역이다. ⓒ의 역할은 <표 1>-(5)의 '시간 벌기'이며, 의미는 '구어에서 술술 말할 수 없을 때 끼우는 이음말'이고, ⓒ'는 상황에 맞춰 접속 부사를 적용한 것이다.

【분석 자료 5】<사쿠라와 하루키의 대화 5>

사쿠라 : ⓐ**あのさ**、ちょっと手違いがあったみたいでさ、元々予約してた部屋が…
ⓐ'**있잖아**, 약간 실수가 있었나 봐. 원래 예약한 방이…
하루키 : あ～そういうこと。그랬구나.
사쿠라 : …予約してた部屋より… 예약한 방보다…
하루키 : それは結構だね。잘된 일이네.
사쿠라 : ⓑ**あのさ**、一緒の部屋なんだけど、いいよね？
ⓑ'**그런데 말야,** 방이 하나인데 괜찮지?
하루키 : ⓒ**は？**
ⓒ'**뭐?**

【분석 결과 5】

ⓐ와 ⓑ의 역할은 <표 1>-(2)의 '분위기 완화'이며, 의미는 각각 '친한 상대에게 말을 걸 때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 사용하는 말'과 '친밀감을 가지고 말의 처음에 끼워 넣는 말'이다. ⓐ'의 '있잖아'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강조하거나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고, ⓑ'의 '그런데 말야'는 필러가 아닌 접속 부사이다. ⓒ의 역할은 <표 1>-(7)의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미는 '수상쩍어 할 때 내는 소리'이고,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분석 자료 6】 <하루키와 반친구 미야타와의 대화>

미야타 : ⓐ **よう**、志賀！おまえ山内桜良と付き合ってんの？

ⓐ' **야,** 시가! 너 사쿠라하고 사귀냐?

하루키 : ⓑ **へ？**

ⓑ' **뭐?**

미야타 : あいつもずーっと騒ぎっぱなしだし。

恋人取られたみたいにさ。

쿄코도 뾰루퉁하고 말야.

애인 빼앗긴 사람처럼.

하루키 : ⓒ **ああ、**

ⓓ **いや…**

クラスメートに名前で呼ばれたの君が初めてだったから。

ⓓ' **아니,**

ⓒ' **그게…**

우리 반에서 내 이름 부른 사람 네가 처음이야.

【분석 결과 6】

ⓐ의 역할은 <표 1>-(4)의 '주의 환기'이며, 의미는 '친구를 부를 때 내는 소리'이다. ⓐ'의 '야'도 일본어와 같은 뜻으로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다. ⓑ, ⓒ, ⓓ의 역할은 <표 1>-(7) '화자의 심적 태도 표명'이며, ⓑ의 의미는 '다소 정색을 하고 되물을 때 쓰는 말'이고, ⓒ는 '무엇에 감동하여 내는 소리'이다. 그리고 ⓓ는 '놀랐을 때나 감탄했을 때 내는 소리'가 된다. 또한 한국어 자막 ⓑ'의 '뭐?는 '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고, ⓒ'의 '그게'는 대명사 '그것'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준 말이며, ⓓ'의 '아니'는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이다.

【분석 자료 7】<하루키와 쿄코의 대화 >

쿄코 ：ⓐ **ちょっと**、そこの疫病神！桜良盲腸で入院だって。 ⓐ' **야,** 너! 재수 없는 놈! 하루키：え？ 뭐?

【분석 결과 7】

ⓐ의 역할은 <표 1>-(4)의 '주의 환기'이며, 의미는 '상대를 부르는 말'이다. ⓐ'의 '야'는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다.

이상으로 7 개의 분석 자료에서 17 종류의 일본어 필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자막에는 중복 적용을 포함해 11 종류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11 종류의 표현에 대한 출현 횟수와 사전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3>이다.

<표 3> 자막에 나타난 11 종류의 출현 횟수와 그 표현의 사전적 의미

자막 표현	횟수	의미
야	4	①매우 놀라거나 반가울 때 내는 소리. ②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
뭐?	5	①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 ②이미 일어난 뜻밖의 일이나 상황에 놀라거나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
그러게	1	①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②상대방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하는 말.
아	1	①남의 말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 ②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내는 소리. ③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④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는 소리.
그래?	1	①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②상대편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어서 말해	1	<의역>
그러니까	1	①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앞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③앞 내용에 대해 부연이나 보충할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있잖아	1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 또는 이야기 중에 내용에서 강조하거나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

그런데 말야	1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그게	1	'그거'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서 준 말
아니	1	①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②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표 3>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1 종류의 표현 중에서 '뭐?'가 5 회, '야'가 4 회로 각각 중복 적용되었다는 점과 접속 부사와 의역이 적용된 점이다. 이를 통해서도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필러의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러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오기

본 연구는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소재로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비교・분석하여 언어표현에 투영되어 있는 이문화 요소를 분석한 이윤옥(2020)의 후속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어 대사에 나타나는 필러가 한국어 번역 자막에서 많이 소실되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필러와 그에 대한 한국어 자막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발화 첫머리에 사용된 필러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로 화자의 발화 말문을 열어 듣는 이의 주목을 유도하고 발화 경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필러의 명칭이나 품사 분류가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필러의 역할을 정리하여 <표 1>로 제시하는 동시에 분석 자료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 출현한 필러의 사전적 의미와 출현 횟수를 정리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영화에 출현한 일본어 필러는 총 44 종류로 142 회 사용되었으나, 한국어 자막에서는 64 회밖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일본어 필러의 약 55%가 한국어 자막에서 소실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서는 일본어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서 완전히 소실된 대화문을 11 개 발췌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 1>을 기준으로 대화문에 출현한 19 종류의 필러에 대한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는 일본어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 어떤 형태로든 적용된 7 개의 대화문을 발췌하여 검토하였다. 이 또한 <표 1>을 기준으로 대화문에 출현한 17 종류의 일본어 필러에 대한 역할과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 17 종류의 필러가 한국어 자막에 적용된 것은 11 종류의 표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막에 적용된 11 종류의 표현에 대한 적용 횟수와 의미를 <표 3>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필러의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러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막에서 소실된 일본어 필러는 화자가 행하는 다양한 심적인 정보처리 조작을 밝히는 구실을 하는 동시에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는 점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이윤옥(2020) 「일본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이문화 요소」*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5, pp.19-41. (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李翊燮・任洪彬（1998)『国語文法論』學研社。

小出恵一（1983)『話しことばの表現』(水谷修（編)) 筑摩書房。

定延利之（編）(2010)「会話においてフィラーを発するということ」『音声研究』Vol.14 No3)(pp.27-39) 日本音声学会。

趙宏杰（2014)「依頼談話に関する日中対照研究 ―談話参与者の相互行為を中心に―」東北大学大学院博士論文。

野村美穂子（1996)「大学の講義における文科系の日本語と理科系の日本語―『フィラー』に注目して－」『文教大学教育研究所紀要』第 5 号。

朴成泰（2004)「日・韓の自然談話データに基づく対照談話分析－言い淀み・重なり・あいづちを中心にして―」東北大学大学院博士論文。

山根智恵（2002)『日本語の談話におけるフィラー』くろしお出版。

<참고 사전>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新村出（1998)『広辞苑』第 5 版、岩波書店。

ブリタニカ・ジャパン株式会社（2015)『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版 2016』iOS アプリ。